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참된 지성인적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제1831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3월 11일 (음력 2월 15일) 수요일

UNIVERSIADE GWANGJU 2015

U대회 광주에서

희망! 2015 리본달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희망! 2015 리본달기' 행사가 10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유니버시아드를 상징하는 U자 조형물에 대회 유치 소망이 담긴 리본을 부착한 뒤 풍선을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알 림

만화 한국사로 배우는 즐거운 漢字

3월16일부터 매주 월요일 무료 배달

광주일보사가 '만화 한국사로 배우는 즐거운 한자'를 발행합니다.

'즐거운 한자' 학습지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를 만화로 만들어 초·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즐거운 한자'는 역사를 흥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 고대사~근대사로 줄거리가 짜여져 있으며 필수 한자는 물론 고사성어, 논술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한자'는 3월16일부터 매주 월요일, 광주일보와 함께 모든 독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즐거운 한자'는 타블로이드판 올 컬러 16면이며 도서출판 대능이 제작한 수준높은 만화로 구성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복지예산 '도둑질' 심각

해남군 여직원 영세민 지원금 10억 횡령

진도에선 군청 주사가 수백만원 빼돌려

해남군 7급 공무원이 복지급여 10억여원을 횡령하고, 진도군 보건소 6급 공무원이 진료비를 유용하는 등 복지재정이 '눈 먼 돈'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5년여간 10억여원의 거액이 빠져나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에는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는 등 자체 감사기구의 부실한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억여원을 횡령한 해남군 소속 7급 공무원 장모(40·여)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읍사무소에서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장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아들·지인·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차명계좌 34개를 개설했다.

장씨는 이어 급여자료 작성과정에서 매달 1명에서 최대 36명까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로 끼워넣는 수법으로 5년간 758명의 복지급여 3억6천만원을 횡령했다. 장씨는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천624명분 6억4천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장씨는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횡령액 가운데 5억원을 모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은 토지취득·채무변제·모친 병원비·자동차 구입·해외여행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남경찰은 이날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고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씨가 수년간 거액을 횡령하는 동안 군 관계자 등이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장씨의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계좌 명의자 및 관계공무원, 가족 등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06년~2008년 사이 난방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 25차례에 걸쳐 515만원을 횡령하고, 진료비 수입금을 본인 생활비로 사용한 뒤 연말 정산시 수입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836만원을 유용한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을 적발해 추가 횡령 금액이 더 있는지 조사중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공금 6천2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충청남도 아산시 모사업소 기능직 8급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춘천시 소속 사회복지담당 8급 공무원도 노인 교통수당과 장애수당 등 104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전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i@kwangju.co.kr

화순·곡성 등 광주 인접 6개 郡

개발 쉬워진다

'신발전 특별법' 입법예고

화순과 곡성, 보성 등 광주시에 인접한 낙후지역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국토해양부는 10일,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더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낙후지역으로, 특별법은 이들 지역을 인접 시·군과 연계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으로는 인접 시·군의 범위에 광역시내 자치군·구는 포함돼 있지 않아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화순과 곡성, 보성, 장흥, 함평, 영광 등 광주시와 인접한 6개 군지역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개정되면 이들 6개 지역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광주시와 연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12월30일 무안과 신안, 영암, 해남, 진도군 일부를 인접한 목포시와 묶어 '서남권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개성공단 통행 정상화

북한은 남북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을 차단한 지 하루 만인 10일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가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통행을 정상화 했다. 〈관련기사 5면〉

북측은 이날 오전 9시10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에 오늘부터 인원과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키리졸브 훈련기간(9~20일) 중 완전한 자유왕래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지역과 금강산 지역에서 차량·인원의 출·입경이 원상회복됐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공단 관계자와 근로자 247명과 차량 179대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갔으며 동해선을 통해 인원 3명, 차량 3대가 금강산 지구로 넘어갔다. 또 같은 경로를 통해 210명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전날 발이 묶인 80여명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11일 오후 3시께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출신 지오니씨

내년에 열리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를 이끌 예술총감독에 미국 뉴욕의 뉴 뮤지엄(New Museum) 특별전 디렉터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37·Massimiliano Gioni·사진)가 선임됐다. 〈관련기사 13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0일 오전 비엔날레 회의실에서 제110차 이사회를 열고, 제8회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를 임명했다.

지난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이후 선임된 감독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단독 외국인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 출신인 지오니 감독은 볼로냐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한 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2003년)와 세계적인 미술 정론지인 플래시아트 인터네셔널의 편집장(2000~2002년)을 역임하는 등 현재 가장 주목받는 신예 기획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U대회 유치 적극 지원"

광주 방문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 밝혀

10일 광주시를 방문한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는 박광태 시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주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활동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인터뷰 5면〉

이와함께 청 대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청 대사는 이날 본보와의 회견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08년 한국 방문시 2010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강화를 약속한 바 있고, 박람회의 개최 연도에 각각 해당국 방문의 해를 정해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 대사는 무안기업도시에 조성중인 무안국제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국 상무부는 이곳을 '해외경제무역협력구' 프로젝트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